

#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와 과제 :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영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 I. 들어가는 말

지구/지역화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혼인을 통한 이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메트로폴리탄 도시 서울은 도시민에 대한 개념과 도시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서울의 정책은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시민권에서 이질적이고 차별화된 시민권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도시발전 모델도 발전 담론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서울의 여성 정책 영역에서도 일고 있다. 기존의 지역 여성 정책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의 틀 내에서 여성의 일자리 지원,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서울시 여성들은 지역단위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서울시는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여성들의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여성 정책에 도입하였고 기존의 여성정책과 도시 여성 공간 정책을 포괄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이후 여행 프로젝트로 칭함)를 기획하였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여성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도시여성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개념적 측면에서는 성평등권(gender equality)에 여성의 도시권(right to the gendered city) 개념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영역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복지, 일, 돌봄 중심의 여성 정책에 도시 공간 정책으로 확대하였다. 추진 방법의 측면에서는 여성부서 외의 전 실국이 참여하는 성 주류화를 강화하고 여행 전문가 자문단 및 자치구 포럼단, 일반시민 프로슈머 조사단 활동을 통해 여성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만들기 정책(女幸 프로젝트)의 3년간의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별로 부딪히게 되

는 문제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도시 여성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여성친화도시 정책 기획 및 도입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도시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도시 공간, 특히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사용권을 확대하고 도시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기획한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민선 4기 시장임기동안 추진된다. 사업목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돌봄, 일, 문화, 안전, 편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 1. 여성의 도시권 개념 도입

여행 프로젝트는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2007~2008)는 여성의 도시권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여성정책에 처음으로 도시 공간의 영역을 포함시키고, 이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들을 발견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 공간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였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도시권이란 거주(inhabitation)를 바탕으로 한 도시에 대한 권리로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시 공간의 ‘충분하고 완전한 사용’을 할 권리를 확보하는 공간 사용권(the 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거주민이 도시 공간 생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참여권(the right to participation)으로 구성된다.

공적 공간에서 여성, 흑인, 기타유색인종, 노동계급, 빈민들은 백인 중산층 전문직 남성들에 비해 이해관계를 드러내기 어렵다. 도시 공간 선택권의 과정은 복잡하다.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성별화된 참여로 인해 이해를 반영시키지 못하여 공간 사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Fenster, 2005; Mcdowell, 1999).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원리들은 공적 영역, 생산 활동, 도심, 사회정치 영역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적영역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해온 여성들의 삶은 비가시화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한 예로 도시 교통 계획은 일터로 출근하는 중성의 통근자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통수요 예측이나

도로 건설, 대중교통 계획을 세울 때 출·퇴근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럴 경우 가사 및 육아로 인한 교통 이동이나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이동은 고려되기 어렵다(Law, 199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권 개념에 기초하여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이 완전하고 충분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이 도시 공간 생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맡도록 기획하였다.

## 2. 여성친화 도시 정책 영역별 사업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은 공공 공간에서의 여성의 사용권을 확대하는 도시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 공간 특히 거리, 교통기관, 도심공원 사용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문제,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의 공공시설 등 공적 공간의 접근성 확대,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표 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개요(2008년 연동계획 기준)

영역	대표 사업
돌보는 서울	공공보육시설 확충, 자녀양육 토탈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내 양육 지원시설(수유실, 놀이방, 휴게실) 설치, 노인, 장애인, 노숙인 지원 등
일있는 서울	여성의 일자리 확대, 취업활성화,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생 보육 서비스제공,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강 등
넉넉한 서울	문화시설에 여성친화시설 개선(놀이방, 유모차 대여 등),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성친화 문화시설 건립, 여성의 정보화 확대 등
안전한 서울	여성이 안전한 주거단지 설계, 안전한 지하보차도관리, 무장애 1등급 도시 만들기, 여성을 위한 콜택시 등
편리한 서울	공중화장실의 여성편의 증진(변기수 확대 등),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설치, 전동차 손잡이 개선, 여성친화도시구현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등

돌보는 서울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영역에서는 그간 여성에게 전담된 보육과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외에 노인, 한부모, 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을 구현한다.

일있는 서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들이 원하는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넉넉한 서울은 여성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전한 서울은 도시의 위험, 범죄, 환경오염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도시의 밤길 안전도를 제고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을 구현한다.

편리한 서울은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공간 구성을 통해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편리한 서울에서는 공공시설 편의성 증진 및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의 이동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환경 및 공공 공간 전반에서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3. 여성 시민 거버넌스 체계 확립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도시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참여 체계를 확립하였다. 여행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는 전문가에서 일반 여성까지 포함하며, 시 전체단위에서 자치구 단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여성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 계획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성들이 도시 공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문가 여성은 각 실국의 여행 사업 개발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자문단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동반자와 각 실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고 동반자단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낮아 지속적인 자문이 이루

어지기 어려웠다.

<표 2> 여행 동반자(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활동(2008)

구 분	내 용
인원	· 5개 분과 193명(2008)
구성	· 5개 분과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시의원, 서울시 인력기관 및 보육기관 대표
기능	· 실국 여행사업 자문 및 신규 과제 제안
활동내역	· 2007년 분과회의 5회, 자문회의 12회 · 2008년 분과회의 7회, 자문회의 58회 · 온라인 자문(1차 11개 시책, 2차 6개 시책 대상) · 자문안건 106건, 반영 49건
의의	· 전문가 중심으로 시정에 여성의 관점 반영 · 대규모 분과회의, 소규모 자문회의, 온라인 자문으로 시정 참여
과제	· 운영 및 구성 다원화 · 동반자와 실국 협력체계 미흡 ·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이해도 낮고 자발적인 참여 부족

자료: 조영미 외(2008), 『여행프로젝트 발전방안』

여행 프로젝트는 일반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주력하였다.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 도시 공간 불편사례를 현장 조사하는 데 참여하여 2008년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 및 지하 공간 화장실 조사, 공영 주차장, 지하 보차도, 브랜드 콜택시, 영유아 프라자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행 화장실 및 주차장 인증평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치구 단위로도 여성들이 참여하였는데 송파구에서는 길과 버스정류장의 안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불편요인을 발굴하는데 유용하였고, 여성들 스스로 민주적인 지역참여의 계기를 확보하였다.

<표 3> 여행 프로슈머(일반시민여성) 구성 및 활동(2008)

구 분	내 용
인원	· 일반 여성 40명
구성	· 20~30대 미혼여성, 30~40대 기혼여성, 시니어 여성
기능	· 지역사회 도시 공간 불편 사례 현장 조사
활동내역	· 서울시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조사 ·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 실태조사
의의	· 일상생활에서 불편 사항 자료 제공 및 대안 제시 · 지역사회 사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과제	· 조사 영역 확대 및 환류 체계 확립 필요 · 사회적 약자 여성 등 구성 다원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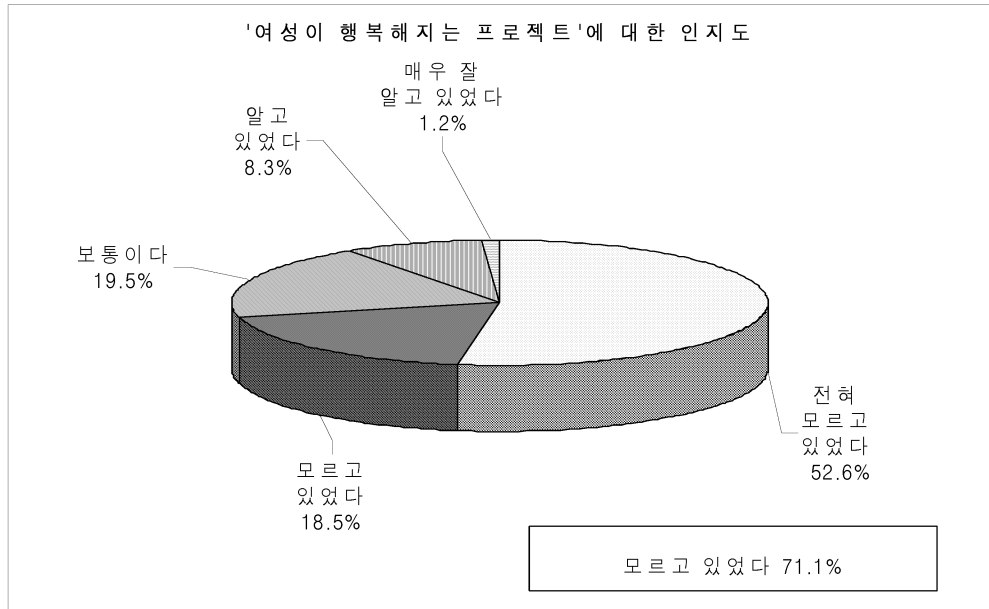
자료: 조영미 외(2008), 『여행프로젝트 발전방안』

#### 4.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평가

이 단계는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 정책에 성별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체계가 미흡하였고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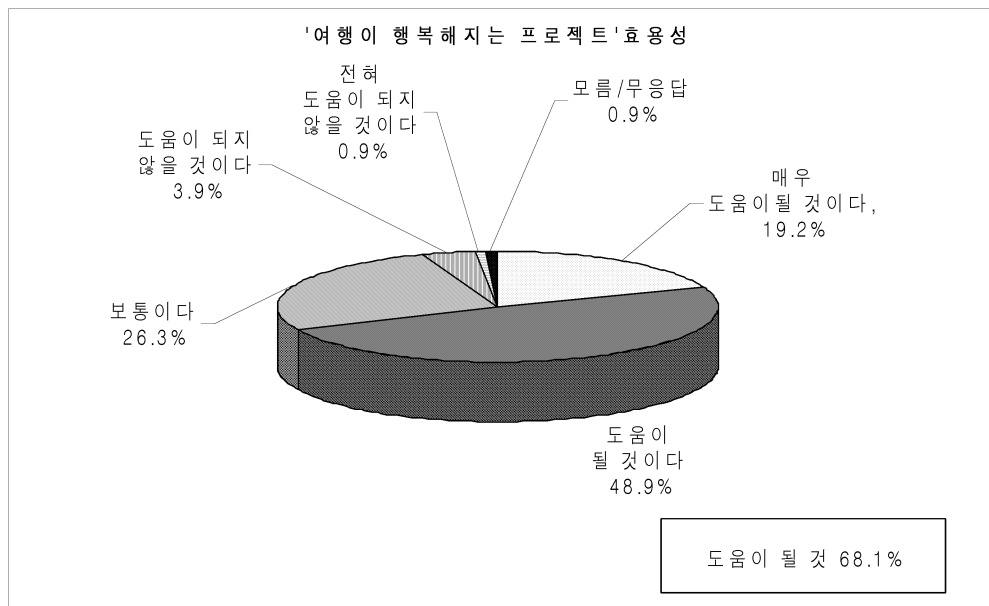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 시민여성들의 여행 프로젝트 체감도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 2007년부터 2008년 매년 말 측정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조사에서 전체 여성시민 중 71.1%가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 중 68.1%가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효용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수요는 높으나 아직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지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자료: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그림 2> 여행 프로젝트 효용성



자료: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일반시민 여성들의 평가에 따르면 여행 프로젝트 전체 영역에서 ‘취업 및 창업’, ‘안전’ 차원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고, ‘여가 생활’,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보육’ 차원에서 만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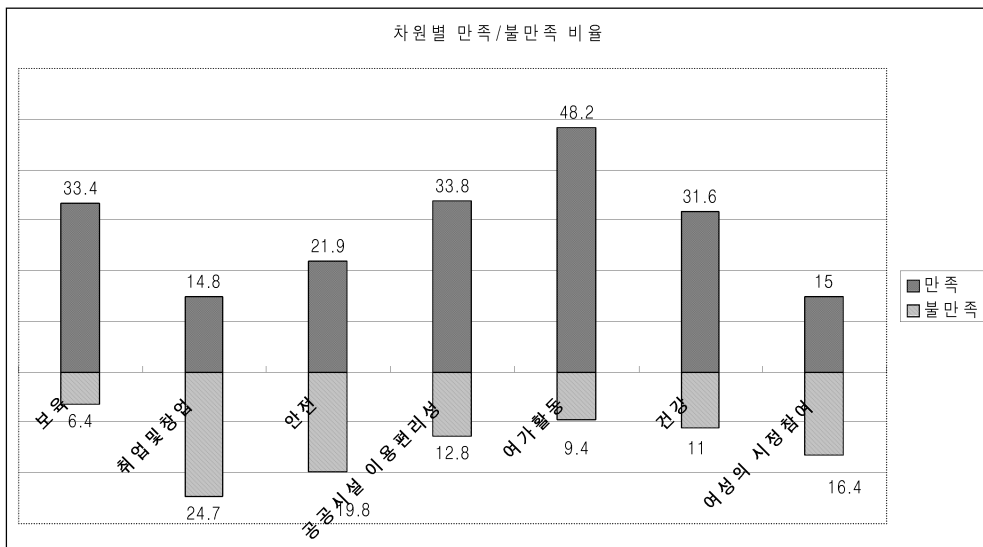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각 차원별로 서울시 여성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시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보육은 어린이집 급식, 안전, 위생 관리 향상, 어린이집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야간 및 휴일 이용용이, 어린이집 보육료 적정 수준 책정이 제시되었다. 취·창업 분야는 취업, 창업, 직업훈련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제공과 정보 수집 용이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안전 차원은 밤의 가로등 조명 상태 개선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 시설확보가 필요하다. 공공시설 이용편리성 영역은 보도에서 유모차 이용 및 보행 시 편리성 증진 및 어린이방, 수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여가의 경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 및 여가 프로그램 정보의 쉬운 수집을 제안하였다. 건강 영역은 적절한 진료 기회 제공과 상담 필요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을 요구하였다. 시정참여는 여성에게 필요한 서울시 정책 정보 제공 및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는 서울시 정책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서울시, 2009,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자료).

<그림 3> 여행 프로젝트 차원별 만족도(2008)



자료: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 III.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 확립 및 여성친화 도시 공간 구축

2009년 들면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업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 여가문화, 안전, 대중교통, 건강의 영역의 사업을 추가 개발하였다. 둘째로 여성 시민의 요구를 보다 확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영역별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서울형 어린이집」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엄마가 신났다」 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는 여성들이 불편을 겪는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택시, 아파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기준을 통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여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성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 1.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 확립

여행 프로젝트 도입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분위기는 정착되었으나 여행 프로젝트 사업내용이 계속 보완 및 발전되지 못하고 초기 상태로 정체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9년 1월 30일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국본부, 투자, 출연기관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신규과제는 단 4건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여행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이 아직 현장 가시화가 부족하여 시민 고객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도가 낮았다. 여행 사업들의 당초 목표에 비하면 실적은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최초의 목표치 설정이 낮거나 예산 및 제도상의 한계로 공공부문에서만 사업이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점검한 아래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체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65.4%이고 이 중 여행 프로젝트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9.0%, 사업효과성이 부족한 경우가 16.4%, 수요 대비 사업충족도가 낮은 경우가 40.0%에 달하였다.

<표 4> 여행 프로젝트 점검 결과 (2008년도 연동계획 중심으로)  
단위: %

계	개선불필요	개선 필요			
		계	적합성 부족	충분성 부족	효과성 부족
100.0	34.6	65.4	9.0	40.0	16.4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여행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과제 제안』

이는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제출한 사업을 중심으로 여행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여성과 무관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여성 중 아이를 동반한 여성 혹은 임산부 여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대로 포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자 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첫째로 도시 여성의 불편, 불안, 불쾌 요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둘째는 여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여성들을 우선으로 위한 정책(only for women)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수혜 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경우는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셋째는 국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9년 3월 기존 사업들을 구조 조정하여 5개영역 90개 사업에서 60개로 조정하였다. 제외된 사업은 저상버스, 외국인 투자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지원, 기존의 여성대상 강좌 등 30개이다.

시는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에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발된 과제들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신규과제는 여성건강증진타운 건립, 여행 워터파크, 여행 아파트, 여행공원, 여행 승용차 요일제, 여행 버스,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 운영 등 30개 과제이다.

신규과제는 사업 목표나 대상이 여성의 도시 공간 이용권 확대라는 것은 보다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담당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불편요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에 적합한 사업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고 단기적이며 저예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사업 영역 확대 및 효과성 증대 : 인증제 실시

도시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 일, 여가 및 문화, 안전 및 건강 분야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요소들로 남녀모두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일자리, 주거환경의 질, 여가 활동, 교육기회가 충분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여성의 경우 안전문제와 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weet, Swisher and Moen, 2005).

구체적으로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 가족 돌봄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내 돌봄 인프라 구축하고, 여성의 이동성을 고려한 취업기회 및 취업 여건 갖추기가 필요하다. 여가 및 문화에서는 여성과 가족의 여가를 위한 공원, 녹지조성, 가족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안전 및 건강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조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면 총 90개 사업 중 건강 및 안전 분야 7.8%, 주거 8.9%, 일자리 11.1%로 이 분야의 사업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 공공시설, 보도, 인도, 화장실의 사업 비율은 다른 영역과 유사하나 이것은 단순히 사업 개수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공공 인프라에서 여성 친화적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더 필요하다.

<표 5>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비율(2008년도 기준)

영역	세부 영역	사업수(개)	비율(%)
돌봄	자녀 돌봄	13	16.7
	노인 돌봄	2	
일	직업 교육	3	11.1
	취창업/일자리/승진	7	
여가 및 문화	여가 및 문화	11	22.2
	정보화/교육	9	
건강 및 안전	건강	4	7.8
	안전	3	
인프라	교통	7	16.7
	공공시설	1	

	보도 인도	4	
	화장실	3	
주 거	제도개선	4	8.9
	주거	4	
기타	다문화, 한부모, 노숙인, 장애인	6	16.6
	가이드라인 개발 및 평가	9	
계		90	100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 길, 공원, 아파트, 주차장, 화장실 등 도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시는 여행 주차장과 여행 화장실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민 체감도 향상, 사업현장 가시화와 여행 사업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여행 시설 인증제는 1차로 여행 화장실과 여행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건축 전문가가 여행 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 권고항목(universal design 기준 및 시설 상황별 충족기준) 심사기준을 정해 필수는 모두 충족하고, 선택권고 항목은 70점 이상(주차장의 경우 60점 이상 중 선별)이면 인증하도록 하였다.

1차 여행 화장실 및 여행 주차장 인증은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는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총 535건(화장실 214건, 주차장 321건)의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88개소(추후 보완 포함)를 1차로 인증하였다.

<표 6> 여행 인증제 심사기준 (필수항목)

여행 화장실(7)	여행주차장(5)	여행길(5)
여성변기수 확보 (1:1 이상)	여성우선주차면 확보 (주차면 20%이상, 폭 2.3m×5.0m)	여성친화보행로 확보 (폭 1.5m이상, 마감재틈새 2mm 이하)
여성화장실 내 어린이 용 시설 (세면대, 대소 변기, 기저귀교환대)	여성우선주차면 출입 용 이성 (출입구 및 엘리베 이터 30m이내 구역)	보행로와 교차로의 적정 조도 (보행조명설치, 30 Lux이상)

여성편의시설 (손 건조기, 종이타월)	CCTV, 비상벨 (지하주차장)	범죄예방 CCTV설치 (택시 승하차장, 버스정류 장 연계)
여성편의시설 (세면기 주변 선반, 걸이 등)	여성우선주차구역 시야 확보 (출입구에서 구역 식별 가능)	보행로 주변 쉼터 제공 (벤치 등)
화장실 내부 비상벨설 치	여성우선주차구역 조도 (130 Lux 이상)	보행로 주변 시야 확보 (시설물, 조경 등)
적정조도 (실내 150-200lux)		
부스출입문 적정틈새 (바닥에서 6~8cm)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9)

인증제는 2009년 하반기 여행길, 여행공원, 여행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공원과 아파트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여행 인증제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생활 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선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아직 인증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비율이 낮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IV.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한 여성친화 도시정책

##### 1. 도시 여성의 다양성(diversity) 반영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기혼의 임산부,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사업도 수유방, 유모차,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많다.

도시권이란 민족, 국적, 성별 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도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도시권 개념은 도시에 거주하는 성별,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정체성을 넘어서 모두가 동등한 공간 사용권과 참여권을 갖는 것이다(Fenster, 2005).

평균 수명의 연장, 노인인구, 여성노인의 증가, 단독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의

증가, 비혼 증가, 이혼 및 재혼 증가, 입양 아동의 문제 가시화, 경제 사회적 계층 양극화, 이주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 등으로 서울을 구성하는 거주민이 다양해지고 있다.

여행 프로젝트의 3단계(2009~2010)는 서울시 여성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들의 도시 공간과 생활환경에서의 불편, 불안, 불쾌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령, 소득, 혼인, 취업유무, 장애, 이주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여성 집단을 범주화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간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 도시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도시 여성의 다양한 정책 수요개발을 위해 각 변인을 교차시킨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매트릭스를 통해 연령, 혼인, 자녀, 취업여부, 소득, 장애, 이주, 섹슈얼리티 요인으로 여성 집단을 세분화 한 뒤 이들이 일, 돌봄, 문화, 안전, 편리 영역에서 불편한 요인들을 파악할 것이다.

<표 7> 서울 여성의 다양성 매트릭스 및 니즈 조사 대상

변인	주요 대상 집단
연령	10대, 20대, 60대 이상
혼인	비혼, 이혼, 재혼, 사별, 동거
취업	취업, 창업, 취창업 준비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직종별
자녀	입양자녀, 재혼자녀, 싱글맘
소득	빈곤층, 중하층, 중산층
돌봄	자녀 돌봄, 노인 돌봄
장애	장애여성
섹슈얼리티	성적소수자
국적	이주노동자

여행프로젝트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 건강, 주거 및 교통, 자녀, 취업, 가족 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다. 이 외에 도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끼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이나 여가와 소비행태 등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여 도시 여

성의 행복증진을 위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현재 매트릭스 분석틀을 기초로 서울 여성의 생애주기별, 생활패턴별 니즈 조사 FGI를 추진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공무원 성인지성 제고 및 여행 프로젝트 제도화 방안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부서 외의 다른 모든 부서에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일종의 성주류화 정책이다.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 등의 영역은 보편적 남성 시민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여행 프로젝트의 인식도와 성인지성이 여행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 국 및 투 출연기관의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여행 프로젝트를 ‘일상생활에 밀착한 생활시정으로서의 여성정책’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고(65.9%) ‘여성의 도시권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정책’으로 23.7%가 인식하고 있다. 도시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편의성 증진 정책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은 큰 문제는 아니다. 여행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응답이 3.39점(5점 척도)인 것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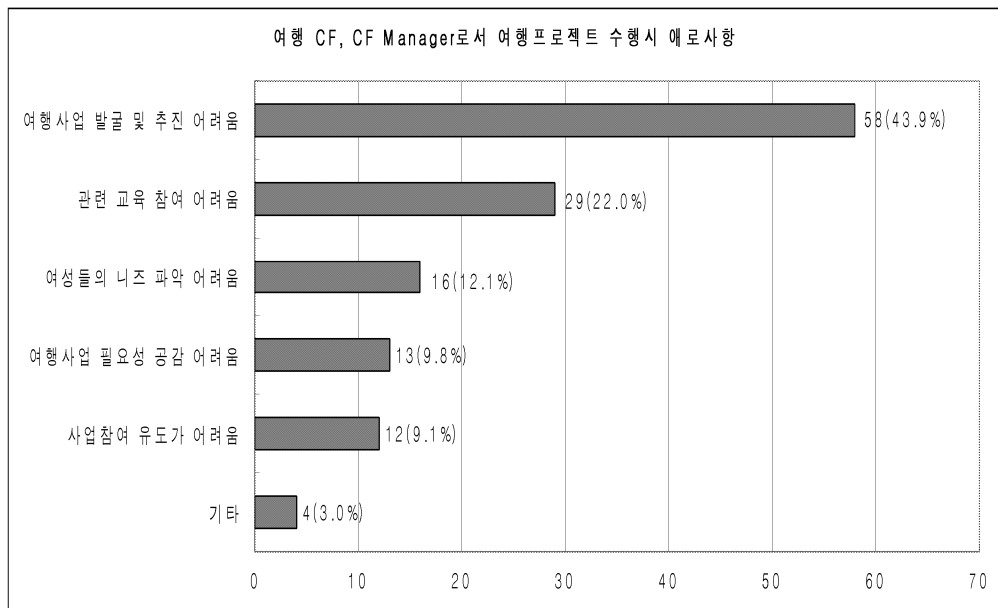
<표 8> 여행 담당 공무원의 여행 프로젝트 인식

의의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 여성정책	5	3.7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친화도시정책	32	23.7
일상생활에 밀착한 생활시정으로서의 여성정책	89	65.9
시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모델	7	5.2
기타	2	1.5
합계	135	100

다만 여행 프로젝트가 다른 시정 역점업무와 비교할 때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경우는 고객만족이 47.0%, 창의 시정 28.4%, 복지시정 11.2%이나 여행 프로젝트는 3.7%에 불과하다.

여행 프로젝트 추진 시 애로사항은 ‘여행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어려움’ 43.9%, ‘관련 교육 참여 어려움’ 22.0%, ‘여성들의 니즈 파악이 어려움’ 12.1%, ‘여행 사업 필요성 공감 어려움’ 9.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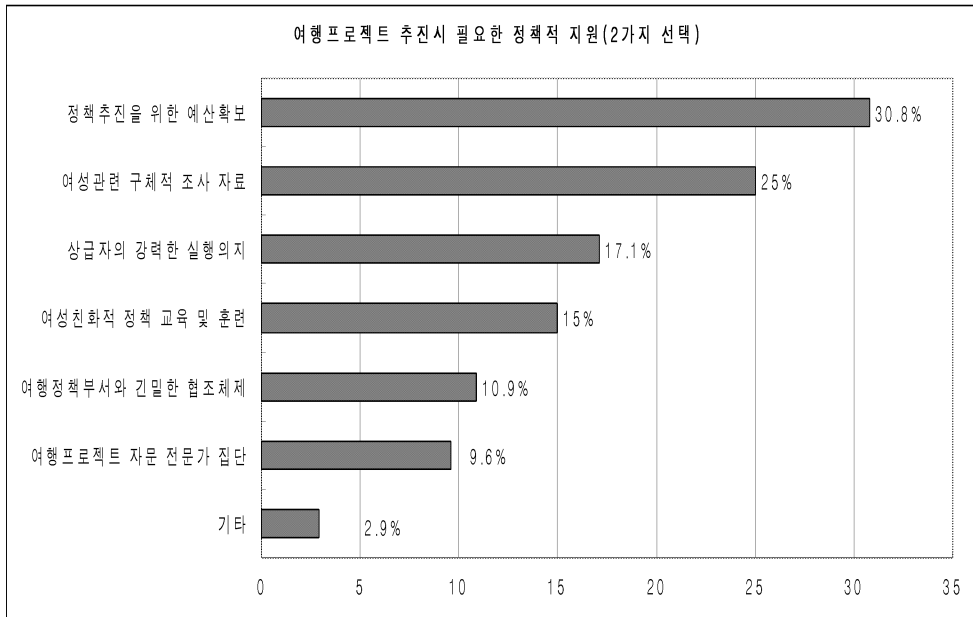
<그림 4> 여행 CF, CF Manager로서 여행프로젝트 수행 시 애로사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여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이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자료 25%, 상급자의 강력한 실행의지 17.1%,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15%로 나타났다.

<그림 5> 여행프로젝트 추진 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여행 프로젝트의 의미는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 정책에서 여성의 수요 파악이 어려워 각자의 사업 영역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행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들의 정책 니즈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례를 제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행 도시 지수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여성들이 체감하는 도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 관련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여 도시정책 수립 초기부터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V. 향후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 정책에서 여성친화 도시 정책을 최초로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여성의 도시권에 기초하여 여성의 공적 공간 사용권 및 접근성 향상과 여성의 도시 정책 참여 절차를 확립하였다. 이후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

곳곳으로 여성친화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 인증제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여성들의 니즈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성을 제고하여 여행 프로젝트 신규과제를 개발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여성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 사업 목표나 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임기가 지나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여성 공간 정책이 시정에 정착하여 도시 공간 정책 전반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시민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여성정책, 지역단위로 내려간 정책개발 및 추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반 시민 여성들이 정책의 주요 행위자(agent)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절차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여행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과제 제안』 .
- 서울특별시(2008), 「여행프로젝트 사업별 4개년 계획: 2008년 연동계획」 .
- 서울특별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
- 조영미, 김창연, 백경재(2008),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Fainstein, Susan and Lisa Servon(2005),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 Fenster, Tovi(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4:3, pp. 217-231.
- Fincher, Ruth(2007), "Space, Gender and Institutions in Processes Creating Difference", *Gender, Place & Culture*, vol. 14, 5-27.
- Law, Robin(1999), " Beyond 'women and transport': towards new geographies of gender and daily mobi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3 no. 4, pp.567-588.
- Massey, Doreen(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 of Minesota Press.

- McDowell, Linda(1999), *Gender, Identity &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niv. of Minesota Press.
- Spain, Daphne(1993), "Gendered Spaces and Women's Status" *Sociological Theory*, Vol.11. no. 2, pp137-151.
- Sweet, Swisher & Moen(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
- Young, Iris(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